2015년07월09일년 수능(국어영역)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34문제】 과목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②	⑤	④	⑤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⑤	③	④	②	①	②	①	②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⑤	③	③	③	⑤	③	③	①	③
	31	32	33							
	⑤	③	①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34문제)

1.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번 공통지문 문제)

> 시원: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에 따라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기로 했지?
> 민지: 그럼 인터뷰 내용이 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이니까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로 하면 되겠네. …… ①
> 시원: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 석준: 그러면 교수님과의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수라 재료의 마련 방법, 공납과 진상의 경로, 수라가 만들어진 과정, 수라의 종류와 구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수라의 의미를 서술하면 되겠어. …… ②
> 시원: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한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 민지: 수라상에는 다양한 기본 밑반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기본 밑반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기사에 추가했으면 좋겠어. …… ③
> 시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 석준: 최고의 멋을 낸 수라와 그것이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싣기로 하자. …… ④
> 시원: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 석준: 그러면 수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 ⑤

❶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2. 학생의 발표 전략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3번 공통지문 문제)

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의 개념을 풀이해야겠어.
❷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사성어를 활용해야겠어.
③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야겠어.
④ 발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겠어.
⑤ 청자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3. 다음은 (나)를 들은 후 다른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나)를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번 공통지문 문제)

> 학생 1: 친숙한 드라마를 영상 자료로 보여주면서 발표를 시작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발표 내용대로 작가가 역사적 사실을 근거 없이 재구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따라서 작가는 이런 점에 유의하며 창작을 해야 할 것 같아.
> 학생 2: 작가가 창작한 허구적 이야기가 역사를 왜곡한다는 발표 내용은 인정해. 하지만 사실의 전달에만 치중한다면 드라마의 재미가 줄어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때 사실의 전달보다 창작의 자유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 학생 3: 팩션이 드라마의 흥미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팩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제 드라마를 볼 때는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겠어.

① 학생 1은 발표를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만 일부 내용은 수용하고 있군.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듣고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❹ 학생 1과 학생 2는 역사적 사실의 전달보다 창작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군.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팩션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있군.

4. <보기>는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6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ㄱ. 많은 학생들이 식품 유형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글을 시작해야겠군.
ㄴ. 글을 쓰는 목적에 맞게 식품의 유형별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해야겠군.
ㄷ. 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식품 유형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해야겠군.
ㄹ.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 식품 유형과 관련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겠군.
ㅁ. 식품 유형과 특징을 알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6번 공통지문 문제)

①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표시'로 고친다.
② ㉡은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대부분의'로 고친다.
③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따라서'로 고친다.
④ ㉣은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으므로 '규정되어'로 고친다.
⑤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고시하여 게시하는데'로 고친다.

6. 다음은 공통지문의 네모친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9번 공통지문 문제)

몇 달 전 한 친구가 내가 해 준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그 친구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그 이후 서로 어색해지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나에게 상담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 글쓴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꽃나무를 심어 향기를 선물하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가시나무를 심어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당시에 내가 한 말이 친구에게 향기가 아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이 책에 제시된 공감의 대화, 긍정의 대화 방법을 익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습관화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 ㄱ~ㄷ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솥→[솓], 잎→[입], 동녘→[동녁]
ㄴ. 닭→[닥], 값→[갑], 여덟→[여덜]
ㄷ. 국화→[구콰], 쌓다→[싸타], 입학→[이팍]

① ㄱ은 음절의 끝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ㄱ의 예로 '꽃→ [꼳]'을 추가할 수 있다.
② ㄴ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ㄴ의 예로 '넋 →[넉]'을 추가할 수 있다.
③ ㄷ은 두 음운이 만나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으로, ㄷ의 예로 '놓지→ [노치]'를 추가할 수 있다.
④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는 '첫해→[처태]'를 들 수 있다.
⑤ ㄴ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는 '핥다→[할따]'를 들 수 있다.

8.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수관형사는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다. 문장에서 둘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지만, 수관형사는 수사와 달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 이 일을 마치는 데에 ㉠칠 개월 걸렸다. (수관형사)
- 육에 일을 더하면 칠이다. (수사)

<보기 2>

- 명호는 바둑을 ㉮다섯 판이나 두었다.
- 윤배가 고향을 떠난 지 ㉯팔 년이 지났다.
- 은주는 시장에서 토마토를 ㉰하나 사 왔다.
- 현수는 달리기 시합에서 ㉱셋째로 들어왔다.

❶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다음 ㄱ~ㄹ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ㄱ. 그가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ㄴ. 이 전시장은 창문이 아주 많다.
ㄷ.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ㄹ. 절약은 부자를 만들고,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① ㄱ은 보어가 있고, ㄷ은 보어가 없다.

② ㄴ은 목적어가 없고, ㄹ은 목적어가 있다.

③ ㄱ과 ㄴ은 부사어가 있고, ㄷ과 ㄹ은 부사어가 없다.

❹ ㄱ과 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ㄷ과 ㄹ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⑤ ㄷ은 절이 전체 문장 속에 안겨 있고, ㄹ은 두 개의 절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 있다.

10.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번(番)

Ⅰ ㉠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번을 서다.

Ⅱ 의존명사
① 일의 ㉡ 을/를 나타내는 말. ¶둘째 번.
②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여러 번.

한-번(-番)

Ⅰ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Ⅱ 부사
①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한번 해 보다. / 한번 먹어 보다.
② 기회 있는 어떤 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 ㉢ / 한번 찾아뵐게요.
③ ((㉣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춤 한번 잘 춘다. / 공 한번 잘 찬다.

① ㉠, ㉣에 들어갈 말은 모두 '명사'이겠군.

②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겠군

③ ㉢에는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를 넣을 수 있겠군.

❹ '한번 Ⅰ'과 달리 '한번 Ⅱ'는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겠군.

⑤ Ⅱ '난 제주도에 한 번 가 봤어.'에서 '번'은 '번-②'의 뜻으로 쓰였겠군.

11.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는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하고 만다.
→ 그는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 만다. ····· ①

○ 활용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 ②

○ 불필요한 어휘가 중복된 경우
예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다. ····· ③

○ 시간 표현이 잘못된 경우
예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습니다.
→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 ④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지나치게 생략된 경우
예 인사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
→ 인사 발령이 나서 급히 가게 되었다. ····· ⑤

① ①

②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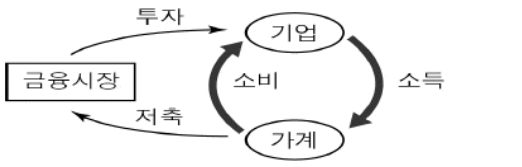
③ ③

④ ④

❺ ⑤

12.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16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 화살표는 돈의 이동 방향임.

①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소비'의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조절된다고 여겼다.

②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에 의하여 '저축'의 크기와 '투자'의 크기가 일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③ 케인스는 '투자'의 크기가 이자율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④ 케인스는 '저축'의 크기보다 '투자'의 크기가 작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❺ 케인스는 '투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경기 침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3. <보기>의 관점에서 ㉠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6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 불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투자 기회와 투자 수요가 많고 자본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① 다수의 의견임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있군.

②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군.

❸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대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군.

④ 단순히 시간상으로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을 인과관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군.

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지와 관계없는 권위자의 견해에만 의존하고 있군.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6번 공통지문 문제)

① ⓐ: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② ⓑ: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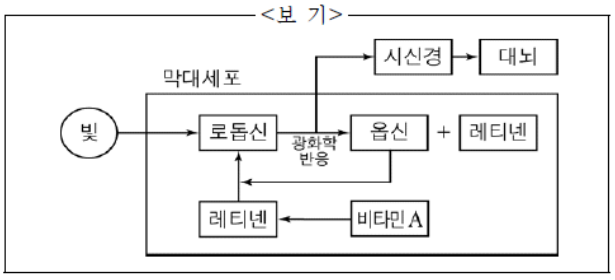
③ ⓒ: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❹ ⓓ: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

⑤ ⓔ: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15. <보기>는 [A]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0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① 로돕신은 약한 빛에도 쉽게 옵신과 레티넨으로 분해된다.

❷ 대뇌가 빛을 인식하는 시점은 전기적 신호가 생기기 이전이다.

③ 옵신과 레티넨의 결합은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다.

④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로돕신의 합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⑤ 어두운 곳에서 물체의 형태를 계속 보려면 로돕신의 합성과 분해가 반복되어야 한다.

16.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번 공통지문 문제)

❶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양극세포는 막대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겠군.

② 망막의 감응도는 빛의 밝기에 따라 양극세포에 의해 조절되겠군.

③ 원뿔세포에 문제가 있다면 색채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군.

④ 광수용체는 빛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신경절세포는 이를 시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군.

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빛 자극은 '원뿔세포 → 양극세포→신경절세포'의 순서를 거쳐 시신경으로 전달되겠군.

1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20번 공통지문 문제)

① 몸에 땀이 많이나서옷이 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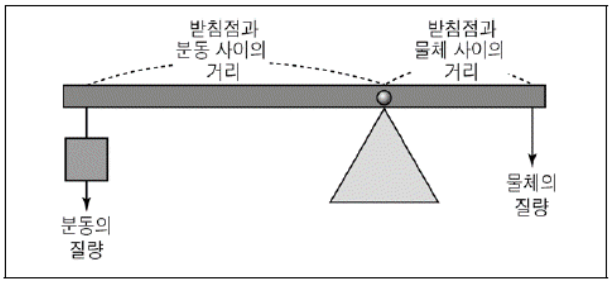
❷ 이제야 광고 효과가나기시작했다.

③ 신문에 합격자 발표가나지않아 걱정이다.

④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겨울을나고돌아왔다.

⑤ 언덕 쪽으로 길이나면읍내로 가는 시간이 적게 든다.

18. 다음은 대저울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윗글과 그림을 관련지어 이해한 <보기>의 내용에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24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ㄱ. 분동과 물체 사이의 받침점을 이동하여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ㄴ. '분동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이 동일하지 않아도 평형을 이룰 수 있다.
ㄷ. '받침점과 분동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동일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분동의 질량' 또한 커진다.
ㄹ. '받침점과 분동 사이의 거리'가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의 2배이면 '물체의 질량'이 '분동의 질량'보다 4배 더 무거워야 평형을 이룬다.

❶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9. [가]를 바탕으로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섰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24번 공통지문 문제)

① B의 길이는 늘어나고 E의 길이는 줄어들겠군.

❷ D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E의 길이는 더 늘어나겠군.

③ A에 작용한 힘과 D에 작용한 힘은 모두 아래 방향이겠군.

④ A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랙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서로 다르겠군.

⑤ 측정 가능한 범위라면, 체중이 무거울수록 B의 길이는 더 늘어나겠군.

20. 윗글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27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자코메티, 「도시 광장」

이 작품은 인간을 단순화하여 인간의 형상을 앙상한 몰골로 드러냈다. 또한 광장에서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대상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① 작가는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했겠군.

❷ 작가는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변화하는 실재 세계를 지각하려고 고민했겠군.

③ 작가가 인간을 단순화하여 조각한 것은 현실 세계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을 통해 이미지로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④ 작가가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걷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기 때문에 실재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나타나겠군.

⑤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전달하는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작가가 의도한 만큼만 이미지를 구성했기 때문이겠군.

21. 윗글을 통해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7번 공통지문 문제)

① 실재 세계가 상상 세계로 통합되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❷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두 세계가 동시에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대상이 주는 인상의 강도 차이에 따라 두 세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지각된 대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세계와 지각된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⑤ 분리된 두 세계는 정신 의식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으며, 결국 인과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22.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27번 공통지문 문제)

① ㉠: 표명했다

② ㉡: 의미한다

③ ㉢: 간주되어

④ ㉣: 변화하면

❺ ㉤: 피력하지만

2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1번 공통지문 문제)

① ㉠은 화자의, ㉡은 '나'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은 화자의, ㉡은 '나'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❸ ㉠은 공간적 상황에 의해, ㉡은 현실 상황에 의해 촉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화자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은 '나'의 현재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의 화자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의 '나'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1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백석의 「정주성」과 윤오영의 「마고자」는 상실감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실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주성」은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쇠락한 역사적 장소를 통해 보여준다. 역사적 장소인 정주성은 허망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작가는 그 속에서도 일상적 삶은 끈끈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한편 「마고자」는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모습을 일상적 소재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외래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수용 태도가 사라지고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① (가)의 '아즈까리 기름의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라는 표현은 고향의 적막감을 강조하고 있군.

② (가)의 '청배를 팔러' 오는 행위는 '또'와 연결되면서 허망감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군.

❸ (나)의 '송자'와 '금석문'은 일상적 소재로, 무분별하게 수용한 외래문화를 나타내고 있군.

④ (나)의 '그것은 탱자가 아니라 진주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군.

⑤ (가)의 '문허진 성(城)터'는 허망함을 자아내고 (나)의 '한국 여성의 바느질 솜씨'는 전통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군.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번 공통지문 문제)

① ㉠은 조 의관이 금전적인 판단이 어설프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다.

② ㉡은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될 원인이 된다.

❸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최대 금액이다.

④ ㉣은 묘막 짓는 일에 문중 사람들이 힘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보여준다.

⑤ ㉤은 묘막 짓는 일에 불만인 상훈을 염두에 두고 창훈이 한 말이다.

26. 공통지문의 네모친 "치산"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34번 공통지문 문제)

① '상훈'은 이 일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② '조 의관'은 이 일에 사용될 비용을 흔쾌히 내놓기로 했다.

③ '조가의 떨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을 제안했다.

④ '창훈'은 이 일로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❺ '조 의관'은 이 일로 자신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7.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4번 공통지문 문제)

①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에게 장자로서 신임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② [A]에서 상훈은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❸ [B]에서 조 의관은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④ [B]에서 조 의관은 [A]의 상훈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⑤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4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삼대」는 구한말을 대표하는 할아버지 조 의관, 개화기를 대표하는 아버지 조상훈,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손자 조덕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생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근대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돈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봉건적 의식을 지닌 조 의관과 개화기 지식인이지만 위선적인 조상훈의 대립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①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강조하는 상훈의 모습에서 개화적 지식인으로서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② 조 의관이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인 것을 통해 조 의관의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❸ 조 의관의 비난에 상훈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개화적 의식은 지녔지만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군.

④ 상훈이 조 의관과 조상을 섬기는 일로 언쟁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군.

⑤ 조 의관이 재산의 반을 상훈이 아니라 덕기에게 상속하려는 것을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군.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9번 공통지문 문제)

❶ '추월'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② '호조 돈'은 춘풍과 추월이 호되게 매를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③ '감사'는 비장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④ '춘풍'은 평양에서 만난 비장이 아내인 것을 경성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다.

⑤ '비장'은 춘풍의 행동에 노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39번 공통지문 문제)

<보 기>

조선은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임병양란을 거치며 가장의 무능한 모습이 부각되어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부도덕하게 사는 남성들이 존재했는데, 「이춘풍전」에는 이런 남성들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남장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춘풍은 무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② 기생인 추월에게 호조 돈을 탕진한 춘풍은 부도덕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❸ 아내가 남장을 하고 비장으로 일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④ 경성으로 돌아와서도 허세를 부리는 춘풍은 아직도 가장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군.

⑤ 춘풍이 겪는 어려움을 아내가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아내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31. ㉠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39번 공통지문 문제)

① 근묵자흑(近墨者黑)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❺ 일거양득(一擧兩得)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43번 공통지문 문제)

① '서러운 말'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자의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이 담겨 있겠군.

② '스스로 참괴하니'를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군.

❸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군.

④ '나 같은 이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군.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33. 윗글과 <보기>의 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43번 공통지문 문제)

❶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 있다.

② 화자의 내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③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와 대상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⑤ 현실의 문제가 환상이라는 장치로 극복된 결과를 보여준다.